

제 2외국어의 입시 반영과 대학 입시

김 법 기 | 한국교원대 교무처장

유명 대학 인기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제 2외국어, 그것도 독일어가 거의 필수나 다름 없던 시기가 있었다. 특히 문과학생이 독일어를 공부한다면 목표하는 대학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다. 그 만큼 제 2외국어를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은 은근히 자랑했다. 소위 일류 대학의 무슨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를 공부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아예 제 2외국어 시간에는 다른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선생님도 구태여 나무라지 않았다. 우수한 학생들에게 필수나 다름 없던 과목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그 명성을 잃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대학들의 제 2외국어 성적 반영 방법은 대학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제 2외국어 성적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대학, 일부학과 또는 계열에서만 반영하는 대학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제 2외국어 성적과 무관하게 대학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것 같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제 2외국어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 데다가 반영하는 학과도 매우 적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말이 제 2외국어 반영이지 실질적인 반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중에 발표되었지만 제 2외국어를 20점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한번 우리의 입시제도를 짚어보자. 금년 11월에 실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보기 불과 7, 8개월 전에 결정한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고 타당한 일인지 의문이 생긴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대학입시 일정이야말로 미리 예정 진로를 정하여 계획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며칠 후에 탈 비행기나 내일이나 오후에 탈 기차표도 미리미리 예약하는 시대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도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약이 편리한 제도이다. 우리들의 삶에서 계획된 일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그 만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의 입시제도는 예상되는 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입시 과목의 발표도 제 2외국어를 선택하여 공부하기 이전에 이런 결정이 내려져야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진학하려고 하는 대학의 입시 관련 문제가 결정되어야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자신이 응사하게 될 대학의

입학전형 방법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지금과 같이 소수점까지 처리하지 않고 등급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400점 만점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점수를 내어 서열화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이다. 즉, 365.1과 365.0은 0.1 차이로 인해 당락이 결정되는데 0.1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급화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점수 자체를 90점인 '수'와 89점인 '우'를 비교하면 점수 차는 1% 정도이지만, 등급화 할 경우 '수'는 5점, '우'는 4점이 되어 1%가 20%로 확대되는 일이 일어난다. 즉, 어느 면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현재까지는 어느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이라도 '수'는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전국 여러 학교의 서열이 동일하게 취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의 해결을 위하여 일부 대학에서 고교등급제 실시가 고려 중이라는 보도로 과문이 있었다. 각 학교에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우수한 학교에서는 찬성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반대할 것이다. 인간에게 능력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나에게, 내 자식에게 득이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다는 것은 좋은 논리가 아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제나 고등학교의 등급제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동시에 실시하거나, 모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새로운 제도를 반대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다양한 제도를 생각해보고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필자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실감난다. 그 때

는 모든 학생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정색의 제복을 입어야만 학생으로 인정되고, 학생복을 입어야만 학생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미명 하에 교복 착용을 의무화 하였다. 그 때는 옷도 남들과 색깔이 같고, 모양이 같은 것을 입어야만 마음이 편하던 시대였다.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복장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길거리 어디를 다녀도 같은 색의 옷을 찾기가 어렵고, 같은 모양의 옷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신경을 써야 같은 모양과 색의 옷을 사 입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대학 입시도 획일화된 틀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대학에서의 신입생 선발이 간편성만을 내세워 아파트 당첨이나 복권 추첨 같이 시행될 수는 없는 것이다. 좀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입시제도를 연구해야 하고, 대학마다 많은 노력을 통하여 다양한 입시제도가 연구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일률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화, 고교의 등급화가 필요한 면도 있으면, 반대의 논리도 있을 수 있다.

끝으로, 무엇보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이들을 위한 입시제도가 공표되고 반드시 그대로 실시되어야 신뢰성도 유지되고, 정상적이면서도 안정된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김범기

서울대 사범대학 물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교육대학원에서 물리교육전공, 일본 나리교육대학 연구생, 일본 히로시마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주포고등학교 및 인일여고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교무처장으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기초자연과학」, 「과학교육론」, 「과학사」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물리교육의 한-일본교 연구" 외 다수가 있다.